

이·정 밀착...몸집 불리는 '반명 연합'

이낙연·정세균 척동·안정감 강조 이재명은 친문 당심 끌어안기 추미애, 이재명 지원 사격 움직임

더불어민주당 경선 레이스 초반 지지율 1위인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는 일명 '반명 연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이 후보도 친문 당심을 끌어안으면서 대치 전선이 한층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당장 이재명 후보의 '바지 발인'이 공격의 타깃이 됐다. 이낙연 후보는 6일 국회에서 이 후보를 향해 "좀 더 진솔하고 겸손한 소명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균 후보도 MBC라디오에서 "대선 본선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 당이 패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내서는 이낙연-정세균 후보의 '2차 단일화' 가능성에 시선이 쏠린다. 두 후보는 '미 접령군', '바지 발인' 등을 고리로 이재명 후보의 불안정감과

본선 리스크를 부각하며 민주당 척동과 안정감을 공통분모로 내세워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의 전날 "대개문" 언급을 놓고도 정 후보는 비판을 가했다. 이낙연 후보는 "대표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고, 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 것처럼 정당사실화했다며 편파성을 문제 삼았다. 이낙연 후보 측은 민주당 지지층 내 지지도가 3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공유하며 세몰이에 나서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날카로운 반격을 자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행사 후 전날 TV토론과 관련, "다녀사냥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경쟁의 한 부분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후 친문 강성 지지자들까지 끌어내는 당내 '워팀' 기조를 지켜내야만 안정적으로 본선에 임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 지사 캠프의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치열해도 폭격은 있어야 한다. 도 넘은 내거티브와 지나친 신상탈기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다"며 "우리는 탄핵의 강을 함께 건너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지지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의 친문 끌어안기의 연장선 상에서 친문 강경파의 팬덤을 거느린 추미애 후보가 이 후보의 '우군'으로 나선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관심을 모은다. '명추연대', '재미연대' 등 표현으로 두 후보의 연대 가능성을 전파하는 시각도 나온다. 당 일각에서는 친노·친문의 좌장격으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이해찬 전 대표를 양측의 교집합으로 거론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일단 "추 후보와 함께 하는 것이 과연 본선 확장성에 도움이 될지는 따져볼 일"이라며 거리를 뒀고, 추 후보 캠프 관계자도 "지난 대선 때 경선 후보 간 다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경선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고 일단 자평하고 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과 만나 "어제부터 모집한 선거인단이 20만 명을 넘은 것까지 확인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민주당·대전시 예산정책협의회 6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송영길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후 원전 정치에 이용 말라”...민주당, 연일 ‘윤석열 때리기’

“대선 출마 알리바이 아닌지 의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윤 전 총장이 최근 “월성원전 때문에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노후화된 원전마저 정치에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월성 원전이 총장직을 중도에 사퇴하고 대선에 뛰어들어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만큼 중요한 문제였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월성 원전 1호가 폐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법원에서도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며 “많은 국민은 대선 출마를 위한

알리바이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 참여에 대한 정확한 명분도 없고 중립성을 위반하고 나오지 않았느냐”며 “본인이 수세에 몰리다 보니 (만든) 알리바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이 전날 만났다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던 사람”이라며 “원전 쪽에 굉장히 가까운 분하고 무슨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양이원영 의원은 SNS를 통해 “원전을 대선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에 진저리가 난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의 ‘처가 리스크’에 대한 공세도 계속

됐다. 이날 토론회 축사를 위해 여의도를 찾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형수 육설 논란을 먼저 언급하며 “온 국민이 비판하시는 가족 내 폭언 문제도 사실 출발 자체가 친인척 비리 문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저였다면 (최모 씨가) 장모가 된 후에는 본인의 권한을 활용해서 어떤 혜택이나 이익을 보지 못하게 막았을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이 더 철저히 사전 봉쇄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TBS 라디오에 나와 “윤 전 총장의 대선 도전 선언 그리고 장모 구속, 부인 인터뷰 이런 걸 통해서 치고 올라가는 추세가 꺾였다”며 “지지율은 추락하는 데 날개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안철수 오늘 회동...야권통합 논의할듯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회동한다. 윤 전 총장과 안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중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한다고 윤 전 총장 대선캠프가 6일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야권 통합 또는 야권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총장과 안 대표는 지난달 30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리더십콘퍼런스 행사에서 처음 대면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출마 선언 후 야

권과의 소통을 늘려가며 통합 논의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 2일에는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와의 만남을 하고 정권교체에 의기투합하기로 하는 한편,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과도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다. 이어 3일에는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을 만나 90분간 만찬을 함께하며 입당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다. 윤 전 총장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도 면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철희 “대통령 척저선 누구도 대선 못이겨”

“청와대, 선거에 선 그을 것”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6일 “지지율 40%인 문재인 대통령과 척저서는 (여당에서) 누구도 다 음 대선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JTBC 유튜브 채널 ‘신예리의 밤샘토크’에 출연해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 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누구도 임기 5년 차에 40% 지지율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특히 “(문 대통령 주변에) 요만큼의 측근 비리도 없다”며 “여야를 대할 때 자신감이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앞서 이 수석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

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정치권에서)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거나, 대통령과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청와대에 선거나 정치에 선을 긋고 민생에 집중할 테니 정치권도 도와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대선 워팀 정신을 강조하던 중 ‘대개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저의 시각이 왜 없었냐만 제가 언급하는 순간 또 다른 논란이 생길 것”이라며 언급을 삼갔다. 그러면서 “대선 과정에서 어떤 논의나 소란스러운 움직임이 있더라도 청와대는 흔들림 없이 하던 일을 뚜벅뚜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강은미 의원 ‘먹거리 탄소중립 법제화’ 토론회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7일 서울시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먹거리WASTE 해결을 통한 일상에서의 탄소중립, 법제화 방안 토론회’를 연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 식품의 약 1/3이 손실되거나 낭비된다. 세계 식량위기 보고서는 심각한 식량 위기에 처한 사람이 2019년 기준 전 세계 1억3500만명이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난해에는 2억65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전체 기아 인구는 9억1000만명에 달한다. 강은미 의원은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식품

생산 및 식문화가 주요한 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먹거리 문화를 개선하고 음식물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의회 4기 예결위원장에 차영수 의원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1)을 위원장으로,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2)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제11대 전남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선출된 차영수 위원장은 대한역도연맹 부회장을 역임했고, 현 한국대학역도연맹 회장, 도의회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차영수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남도민들을 위해 11대 전남도의회

마지막 예결위원장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예결특위는 모두 20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로 전남도와 교육청의 2022년 본 예산안과 2021년 추경, 결산을 심사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h3>장성토지 (분양 매매)</h3> <p>광주에서 20분 (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토지평수 (150평, 200평, 500평, 1800평)</p> <p>★ 전원주택, 창고, 투자적합 ★</p> <p>010-8660-9801</p>	<h3>상가매매 (상무지구)</h3> <p>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3천 (용 4억)</p> <p>2) 월수익 300만, (보 4천)</p> <p>3) 평수 140평, (전용 100평)</p> <p>▷ 중심상업지역(메가박스 영화관 앞) 6층(60평) 매가4억5천(보2천 200), 용 2억6천 7층(40평) 매가 2억3천(보1천 100), 용 9천</p> <p>010-6670-9800</p>
---	---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일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